



1 한국애견연맹에서 주관하는 미용자격증 시험에 매년 많은 응시생들이 몰리고 있다.



2 성지유 국제반려동물 아로마테라미 협회(오른쪽)이 펫케어페스티벌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시연하고 있다.



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들이 훈련된 개 사진제공 | (사)한국애견연맹·펫케어·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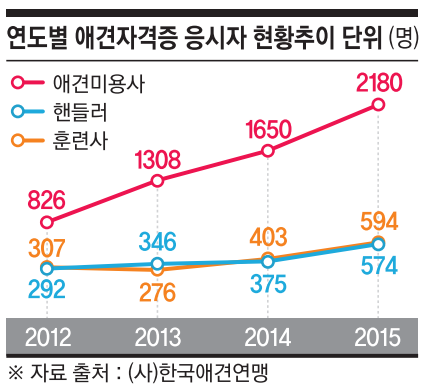
## 미래유망직종, 펫이 열쇠다

애완동물학과 등 관련 학과 증가세  
펫 미용사부터 펫 장례지도사까지  
관련 자격증도 인기...응시생 급증

‘반려동물아로마전문,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최근 반려동물 분야에 생소한 이름의 자격증들이 등판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자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속속 자격증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런 흐름은 대학가와 교육 관련 업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존 4년제 대학교에서 동물자원학과 및 수의예과처럼 축산동물 전반을 다뤘다면 최근에는 전문학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애완동물학과’가 탄생



했다. 이응중 천암연합대학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과거에 비해 반려동물 학과를 가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 총 40군데가 넘었다”며 “이는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 산하 기존 전문대학 12개 수의예과를 포함한 4년제 대학 동물자원을 총 29개가 전국에 분포돼 있다. 노

동부 산하 전문학교까지 애견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를 더하면 그 숫자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도 올해 동물사육, 곤충사육, 동물간호 등 총 8개 새로운 반려동물 학과를 개설해 내년 첫 신입생 반기에 나왔다. 노정래 애완동물계열 학부장은 “최근 대학진학률을 봤을 때 애완동물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는 경험과 경력을 갖춘 교수진들을 확보해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교육한다”고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향후 애견훈련사나 애견브리더, 펫시터 등의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펫영양사,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가, 애견모델 에이전시 등 다양한 업계에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더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

### ●반려동물 전문 자격증도 성장 추세

학과를 전공하지 않고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격증은 ‘애견미용’, ‘핸들러’, ‘훈련사’로 매년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전년 대비 100명까지 응시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사)한국애견연맹에서 등록한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2012년 6개, 2013년 6개, 2014년 12개, 2015년 19개, 2016년 51개가 새롭게 등록됐다. 이 중에는 올해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와 같은 이색 자격증도 있다. 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를 취득하게 되면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스트로 활동하게 된다.

또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이별하게 됐을 경우 사체를 수습해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일이다. 반려동물을 잃고 슬픔에 빠진 보호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8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검정은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돼 그해 응시자 수가 176명이었지만 지난해 응시자 수가 총 284명으로 증가했다. 펫아로마상담사와 펫케어상담사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반려동물 자격증에도 지난해 응시생들이 각각 149명, 26명에 달해 미래직업으로 유망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호원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이사는 “반려동물 동반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해졌다”며 “이미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선진화 돼 가고 있기에 미래 전망이 밝다”고 했다.

김현진 스포츠동아 객원기자

### 애견 미용숍 ‘바둑아사랑해’ 화제



애견 미용숍 ‘바둑아사랑해’가 반려견 모발과 피부 관리 전문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서정민 한국애견협회 애견미용심사위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애견 피부에 마사지 효과를 주는 마이크로 버블기기를 사용해 건조한 겨울철 강아지들의 피부케어에 도움을 준다. 탄산스파수로 반려견 피부의 미세노폐물을 제거해 피부병을 예방한다. 또 미국 유명 브리더들만 사용하는 고급 에슬리샴푸를 사용해 반려동물 모발 케어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국회의원상 수상 이력뿐 아니라 한국애견협회 애견미용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대표의 남다른 미용 실력을 볼 수 있다. 그는 “반려동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피부 관리와 미용을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 내달 10일 ‘함께할까’ 나눔 바자회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애견카페 ‘함께할까 사랑할까’는 12월10일 오후 1~7시 ‘유기견 겨울나기 프로젝트 후원 바자회’를 연다. 지난해부터 유기견 돕기 바자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바자회는 하루 기준 250여 명의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등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번에 4회차를 맞이하는 유기견 돕기 바자회는 업체의 100% 기부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반려동물 업체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반려동물용품부터 식음료, 의약품까지 취급한다. 후원받은 물품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유기견 구조활동비 및 병원비용과 열악한 보호소 사료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민 부천애견카페 ‘함께할까 사랑할까’ 대표는 “유기되고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 유통



1 모델들이 이랜드리테일 모던하우스 강남점에서 크리스마스 상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동화 ‘가스파드와 리사’를 테마로 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의 크리스마스 외관.

##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유통업계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이 대표적으로, 최근 ‘This is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재해석’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가리 ‘세르펜티(뱀) 라이팅’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선보였다. 밤이 되면 9만개의 LED 전구를 활용해 제작한 26m 길이의 뱀 조형물에 일제히 불이 켜지며 화려한 광채를 발휘한다.

회사 측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작

품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려는 이들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롯데백화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 소공동 본점에 동화 ‘가스파드와 리사’를 테마로 외관을 장식했다. 가스파드와 리사는 프랑스 작가 안 귀트망과 화가 게오르크 할렌슬레벤 부부의 창작한 동화다. 백화점 전면을 가스파드와 리사, 크리스마스트리와 그려진 그림으로 감싸고 LED 조명도 설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김대환 롯데백화점 문화마케팅팀장은 “크리스마스 단장과 마케팅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희망 및 행복 등 따뜻한 감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상품 출시도 준비하다. 이랜드리테일의 라이프스타일숍 모던하우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각종 트리와 오너먼트(장식품), 주방용품 등 총 600여 크리스마스 콘셉트 상품을 선보였다.

이밖에도 경방 타임스퀘어는 12월 31일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서울 옛 타임스퀘어’에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인기 뮤지션들의 특별 공연을 즐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색 연말 파티로, 16일까지 인터파

크와 멜론티켓을 통해 4만4000원 특가로 구입할 수 있다. 유통업체가 크리스마스 및 연말 마케팅을 미리 시작하는 이유는 연말을 비롯한 4분기(10~12월)가 연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 대목 시즌이기 때문이다. 평소 소비를 줄이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여는 이들이 많은 것에서 착안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냄으로써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귀띔했다.

정정욱 기자 jiaay@donga.com

## 용산을 ‘한국판 할리우드’로

아이파크몰 1000억 투입 전면 증축  
CJ CGV와 ‘복합 한류 타운’ 조성도

HDC현대아이파크몰이 복합쇼핑몰 용산아이파크몰의 전면 증축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2006년 아이파크몰에 아이파크백화점을 개점하며 유통 사업에 뛰어들어 10년 만이다. 상권 팽창과 HDC신라면세점 방문객수 증가에 따라 쇼핑과 관광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밝힌 ‘비전2020 계획’에 따른 ‘글로벌 어뮤즈먼트밸’로 본격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축엔 총 1000억원이 투자된다. 6만4000㎡에 이르는 면적을 추가 조성한다. 건물 양 측면 위로 원형 3개 층과 오픈된 5개층이 신설된다. 새 상업 시설과 문화여가시설,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른쪽 증축 공간엔 CJ CGV와 손잡고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복합 한류 타운’을 조성한다.

CGV는 용산을 ‘한국판 할리우드’로 만들기 위해 본사를 상암동에서 아이파크몰로 통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 20개의 초대형 상영관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IMAX GT 레이저’를 비롯해 4DX, 스크린X, 스피어X, 사운드X 등 특별관도 모두 들어선다. 90m가 넘는 레드카펫을 설



치해 시사화와 무대인사, 사인회, 스타 오픈 토크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K-무비 관광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CJ&M과 CJ오쇼핑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오픈 스튜디오와 오디오스 버스, 신규 방송 제작 등 한류팬들을 위한 셸럽들과의 만남도 추진한다.

4층 이벤트파크엔 상설 대형 공연장이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이파크몰의 이 같은 변화가 HDC신라면세점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이 연간 약 100만명의 방문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양창훈 HDC현대아이파크몰 대표는 “이번 증축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미디어 제작·체험, 공연 등 주요 상업·문화·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제3세대 쇼핑몰로써 발돋움해 나가기 됐다”며 “글로벌 어뮤즈먼트 몰 실현이라는 쇼핑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y@donga.com

### 현대백화점, 연탄나눔기금 1억원 전달

현대백화점은 최근 연탄은행에 연탄 약 17만5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나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초겨울인 11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 연탄 구입예산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보다 한달 여 앞당겨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